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3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여자를 몰라〉
30 KBS 뉴스	00 생생 정보통 스페셜 20 아침드라마 〈엄마도 예쁘다〉 5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00 아름다운 집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희망릴레이 〈그 사람이 보고싶다〉	11	00 MBC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김수로〉(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20 앙코르 드라마 〈아이리스〉(재)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늘 푸른 인생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HD다큐시리즈 〈생명의 비밀〉
00 KBS걸작선 〈수상한 삼형제〉(재)	30 라이브 음악 창고(재)	1	30 MBC 스포츠 2010 전국 남녀 양궁 종합 선수권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 Live〉	30 HD다큐시리즈 〈南道남도〉(재)
00 KBS 뉴스 10 전국 고등축구리그 〈서울 중동고 vs 서울 중대부고〉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55 바른말 고운말(재)	2		00 SBS 뉴스 10 드라마스페셜 〈주원장〉(재)
50 세계는 지금(재)	00 KBS 뉴스타임 05 호기심 대장 삐악이 35 후토스 잃어버린 숲	3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건강클리닉(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열린채널 40 감성다큐 미지수 스페셜	00 TV유치원 30 롤링 스타즈(재)	4	00 우리아이 미래발견 재능 무한대(재) 30 버리의 시간여행	00 특별기획 애니메이션 〈내친구 해치〉(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15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2TV 하이라이트 〈비타민〉(재)	5	00 MBC 뉴스 20 전국기능경기대회 특집 콘서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6	30 MBC 뉴스 50 한솥밥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쟁점토론	10 생생 정보통	7	45 일일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세자매〉
25 일일연속극 〈바람불어 좋은 날〉	35 KBS 뉴스타임-광주·전남 50 상상대결	8	15 일일연속극 〈황금물고기〉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9	45 MBC 스포츠뉴스 55 수목미니시리즈 〈장난스런 키스〉	55 드라마스페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세계는 지금		10		
00 KBS 뉴스라인 30 현장르포 동행	15 해피 투게더	11	05 후 플러스	05 한밤의 TV 연예
20 KBS 뉴스 30 KBS 특선 〈9/11 비상사태〉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 미술관	12	00 MBC 뉴스 24 10 MBC 100분 토론	15 나이트 라인 45 기차타고 세계여행(재)

EBS

06:00 세계테마기행 〈카리브해의 흑진주, 트리니다드 토바고 〉
06:40 한국기행 〈강릉〉
07:00 다큐 인생 2막 〈광고장이, 가구장이가 되다〉
07:30 딩동댕 신나는 아침
07:35 출동 원더펫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키득키득 실험실
08: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아기공룡 버디
09:25 다큐동화 〈달팽이〉
09:35 클로이의 요술옷장
09:50 따개비 루
10:00 EBS 10시 뉴스
10:10 〈생방송〉 60분 - 부모
11:10 최고의 요리비결 〈김맥업의 늦더위 잡는 손맛 비법〉
11:40 〈생방송〉 TV 입학사정관
12:30 세계의 교육현장 〈독일〉
13:00 TV 평생대학
13:50 극한직업 〈풍력발전〉
14:20 세계 테마기행 스페셜 〈성석제의 칠레종단〉
15:00 두근두근 우리들 세상
15:05 메이저
15:30 딩동댕 유치원(재)
15:50 밀라의 뒤죽박죽 동화여행
16:00 알쏭달쏭 호기심 마을
16:15 키득키득 실험실(재)
16:25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6:3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50 찾아봐요, 제스와 함께!
17:00 아기공룡 버디(재)
17:15 강철수염과 게으른 동네
17:40 출동 원더펫(재)
18:05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19:05 크로스게임
19:30 사이언스 드라마
20:00 세계의 교육현장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e
20:50 세계테마기행 〈태양의 땅, 멕시코〉
21:30 한국기행 〈지리산〉
21:50 원더풀 사이언스 과학, 불과의 전쟁에 나서다
22:40 극한직업 〈머구리〉
23:10 하나뿐인 지구
00:00 지식채널e(재)
00:05 세계테마기행 스페셜 〈여행생활자 유성용이 만난 멕시코 〉

EBS플러스1

04:10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윤리〉
05:00 EBS 탐스런 〈윤리〉
06:00 EBS 포스 〈현대문학〉
07:00 〃 〈적분과 통계〉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상)〉
08:40 〃 〈수학(하)〉
09:30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프로파일러〉
10:00 세계의 교육현장
10:30 생방송 교육마당
11:20 북 다이제스트
11:25 학습자료실 〈수학사〉
12:00 EBS 내신 6감 〈수학(상)〉
12:50 〃 〈수학(하)〉
13:40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상)〉(재)
14:30 〃 〈수학(하)〉(재)
15:20 EBS 탐스런 〈윤리〉(재)
16:10 〃 〈지구과학 I 〉(재)
17:00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세계지리〉
18:00 EBS 포스 〈현대문학〉(재)
19:00 〃 〈적분과 통계〉(재)
20:00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지구과학II〉(재)
21:00 EBS 내신 6감 〈생물〉
23:00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윤리〉(재)

EBS플러스2

08:00 경찰공무원 시험대비강좌
08:30 검정고시 강좌
09:00 EBS TV 중학 1학년 〈영어〉
09:40 〃 〈과학〉
10:20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 〈과학〉
11:00 방귀대장 뽕뽕이
11:15 딩동댕 유치원
11:35 Easy Job English
11:50 EBS TV 중학 2학년 〈영어〉
12:30 〃 〈과학〉
13:10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 〈과학〉
13:50 중학영어독해 Level 3
14:30 EBSe 초등영어
14:50 EBS 클립뱅크
15:10 Sing Sing 영어동요
15:20 다문화가족 드라마
15:50 EBS초등내공냠냠〈과학3-2〉
16:20 〃 〈과학4-2〉
16:50 〃 〈과학5-2〉
17:20 〃 〈과학6-2〉
17:50 EBS TV 중학 1학년 〈영어〉
18:30 〃 〈과학〉
19:10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 〈과학〉(재)
19:50 EBS TV 중학 2학년 〈영어〉
20:30 〃 〈과학〉
21:50 EBS TV 중학 3학년 〈영어〉
22:30 〃 〈과학〉

법원 "케이블 업체 지상파 동시 재송신 금지"판결

저작권 침해 판단…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 대상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체에 가입돼 있는 시청자들은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사는 지난해 12월17일 "케이블은 그간 비용 없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스스로의 서비스 기반을 늘려왔다"며 방송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구한 바를 받아들여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이란 케이블 방송 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함께 전송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대로라면 동시 재송신 행위가 중지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은 보지 못하지만 지상파의 녹화방송은 볼 수 있다.

케이블 업계는 일부 가입자만을 떼어내 재송신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가입자 전체를 상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경우,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인 유료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가 양측 모두 원만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일단 다수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가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대가 지불이라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면서 자칫 가입자들의 시청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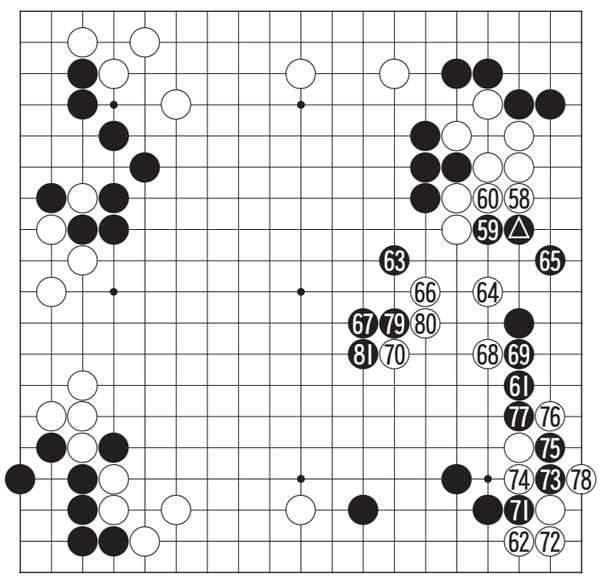
광주 모 케이블 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국이 케이블 업계에게 송출료를 요구한다면 시청자들의 수신료는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양 측의 절충된 입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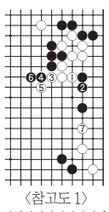
제19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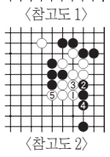
회심의 사석작전

3회전 3국 4보 (58~81)

白 정재묵 5단 (KT전남본부)　　黑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참고도 1〉


〈참고도 2〉

흑 △가 모양을 파괴하는 급소로 뼈아픈 일침이다. 이곳을 얻어맞자 정재묵 5단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백 58이 갈수록 몸을 무겁게 만든 악수가 되었다. 정재묵 5단은 아래로 넘는 수를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무엇보다 백 돌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위쪽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흑 2로 늘면 5까지 선수한 다음 7로 역습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지금은 작은 손해에 연연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또 흑 2로 '참고도2'처럼 치받는 것도 어차피 흑 4의 후퇴가 불가피해서 역시 앞의 그림과 대동소이하다. 실전은 백 58로 둔 죄로 흑 63을 당해 호되게 몰리고 있다.

흑 71부터가 조영배 5단 회심의 사석작전으로, 81까지 백 대마가 거의 갇힌 형국이다. 과연 타개가 가능할까.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9일(음 8월 2일 壬戌)

子 36년생 구설수가 타인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 48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60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72년생 나쁜 일이 쫓아 다니니 주의 할 것. 84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행운의 숫자 : 12,35

丑 37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49년생 돈이 생기나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61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라. 73년생 사소한 일이 중요하다. 85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오히려 득이 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14,33

寅 38년생 알뜰살뜰 지내야 하리로다. 50년생 어려움은 잠시 일 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2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로다. 74년생 온 식솔이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18,30

卯 39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51년생 인생은 연출이다 멋지게 보내라. 63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75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봄날이다. 행운의 숫자 : 20,28

辰 40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52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해야. 64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76년생 가정불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니 서로서로 양보하라. 행운의 숫자 : 21,27

巳 41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마음 편히 일하라. 53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65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77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22,26

午 42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란하다. 54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6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되니 주의하여 들으라. 78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채워지리라. 행운의 숫자 : 01,45

未 43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도 풀리리라. 55년생 마음이 갈팡질팡 이다.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할 터. 67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79년생 분단속을 잘하면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2,44

申 44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56년생 식복이 넘치나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68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로다. 80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03,43

酉 45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57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69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다. 81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행운의 숫자 : 17,31

戌 46년생 지난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58년생 초고후안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70년생 편안한 하루이나 큰 득은 없다. 82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25

亥 47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다. 59년생 결정은 내일로. 손재가 보인다. 71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8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24,1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What did you think of the concert?
그 콘서트는 어땠어?

A : I tired to call you last night.
B : John and I went to the symphony.
A : Oh, what did you think of the concert?
B : The music was great.
It was very relaxing.

A : 어제 밤 자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었지.
B : 죤하고 나는 교향악 연주회에 갔었어.
A : 오 그래, 그 콘서트는 어땠어?
B : 음악이 정말 좋았어. 정말 편한 느낌이었어.

* 그 야구 경기는 어땠어?
= What did you think of the baseball game?
* relaxing : 마음이 편안한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私の 部屋の 窓からは無等山が 見えます
내 방 창에서는 무등산이 보입니다

A : 南さんの 部屋からは 何が 見えますか.
B : 隣の家の 壁が 見えます.
A : 残念ですね. 私の 部屋からは無等山が 見えます.
B : 景色がいいところに 住んでいますね.

A : 남씨의 방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B : 옆집의 벽이 보입니다.
A : 유감이군요. 내 방에서는 무등산이 보입니다.
B : 경치가 좋은 곳에 살고 있군요.

단어정리
部屋 (へや) : 방
見 (み) える : 보이다　　見 (み) る : 보다
見 (み) せる : (남에게) 보이다
残念(ざんねん)だ : 유감이다
壁 (かべ) : 벽　　景色 (けしき) : 경치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니하오 쭝구워

传真
팩스

A : 我发的传真收到了吗?
wǒ fā de chuánzhēn shòudào le ma
(워 파 더 츄안쩐 쇼우따오 러 마)
B : 是什么时候的?
shì shénme shíhou de
(쓰 션머 쓰호우 더)
A : 刚刚传过去的。
gānggāng chuán guòqu de
(깡깡 츄안 꾸오취 더)
B : 啊，收到了。不过，字样不太清楚。
a, shòudào le。búguò, zìyàng bútài qīngchu
(아, 쇼유따오 러. 부꾸오, 쯔양 부타이 칭추)

A: 제가 보낸 팩스 받으셨어요?
B: 언제 보내셨는데요?
A: 방금 보냈는데요.
B: 아, 받았어요. 근데 글씨가 잘 안보여요.

♣ 새로운 단어 (生词)
发 (fā)　　보내다, 발송하다
传真 (chuánzhēn)　　팩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불한이율(不寒而慄)
아닐 불, 찰 한, 말이을 이, 떨릴 률(율)

불한이율(不寒而慄)은 춥지 않아도 벌벌 떨린다는 뜻으로, 포악한 정치로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한(漢)나라 때 도둑 출신의 의종(義縱)은, 그의 누이 의후가 황태후의 병을 고쳐주어 총애를 받음으로써 벼슬에 올라 현감(縣監)을 거쳐 남양 태수(太守)를 지낸 뒤 정양 태수가 되었다. 의종은 지방 호족들을 숙청하고 백성들을 탄압한 잔인한 관리였는데, 남양 태수로 부임하여 악하기로 소문난 도위(都尉) 영성을 잡아가두고 그의 일가족을 모두 죽였다. 그 뒤 정양 태수로 임명되자 정양군의 호족세력을 평정하고 200여 명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감옥에 면회 온 200여 명을 체포하여 모두 400여 명의 백성을 죽였다. 400여 명을 다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정양군의 백성들은 날씨가 춥지 않았는데도 벌벌 떨었다고 한다.

[출전] 『사기(史記)』 〈혹리열전(酷吏列傳)〉
※ 급수 : 한자능력검정 7급, 5급, 3급, 1급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